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수입통관 시스템(FICS) 간소화 추진 계획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수입 통관 시스템 검토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은 식품 수입 허가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식품 수입 통관 시스템(FICS, Food Import Clearance System)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이는 지난 4월 30일 인도 상공부(MoCI, Ministry of Commerce India)가 식품안전기준청에게 식품 수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라는 지시로 인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됨

인도, 국경 간 무역 순위 146위… 통관 및 식품 허가 시간 소요 多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의하면 인도의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순위는 190개국 중 146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 이는 타 국가들에 비해 수입 통관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도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순위

국가	순위
한국	33위
⋮	
인도	146위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수입 통관시 필요한 서류 축소 및 검역 비용 통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원활한 수입 통관 및 수입자의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수를 12개에서 5개로 축소할 계획임. 또한 식품 수입시 필요한 검역 비용이 5,000~1만 2,000루피(한화 약 8~18만원)에서 2,000루피(한화 약 3만원)으로 통일되며 추가 검역 비용은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식품 수입 관련 제도적 개선

인도 정부는 식품 수입 통관 및 검역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개선도 진행함. 인도 상공부는 수입 검역 절차에서 우범요인을 반영한 선별 검사 방식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the risk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수행할 것을 식품안전기준청에 권고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수-전량 검역을 실시했던 이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 또한 식품안전기준청은 올해 6월까지 수입 업체가 제품을 선적하기 전 사전 통관 신고서(PADS, the Pre-arrival document scrutiny)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개선되는 식품 수입 통관 및 검역 관련 사항 확인해야...

인도는 통관 절차가 복잡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최근 인도 정부에서 수입 통관 및 검역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따라서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식품 생산 및 수출업체는 수입 통관 및 검역 관련하여 개선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식품 생산업체가 직접적으로 통관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현지 통관사 및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효율적일 수 있음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공식 사이트, [https:// www.fssai.gov.in/](https://www.fssai.gov.in/)

출처

Food Marketing & Technology, FSSAI Decid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n FICS, 18.05.11

FnBnews, FSSAI to review food import clearance system to halve clearance duration, 18.05.11

The Times of India, Com Min asks FSSAI, customs to cut import clearance time of food cargoes, 18.04.30

The Economic Times, Commerce ministry asks FSSAI, customs to cut import clearance time of food cargoes, 18.04.30